

- 바이그램 분석과 달리 여기서의 관계는 방향성을 띄고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적임을 주의해야한다.
- "colonel"이나 "fitzwilliam"과 같이 바이그램 짝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름이나 제목의 짝이 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, 서로 인접해서 출현하는 단어의 조합도 확인할 수 있다.

Summary

- -이번 장에서는 개별 단어를 분석하여 문장이나 책 한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단어간의 관계 및 연결을 탐색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다.
- -관계를 보는 방법으로는 엔그램이 포함될 수 있으며, 이는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 뒤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지와, 서로 인접한 곳에 출현하는 단어 간의 상관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.
- -이러한 관계를 연결망으로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, 이러한 연결망 시각화는 관계에 대해 관심있게 볼때에 쓰기 적절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.

igraph option

```
library(tidygraph)
```

```
## Warning: package 'tidygraph' was built under R version 4.0.4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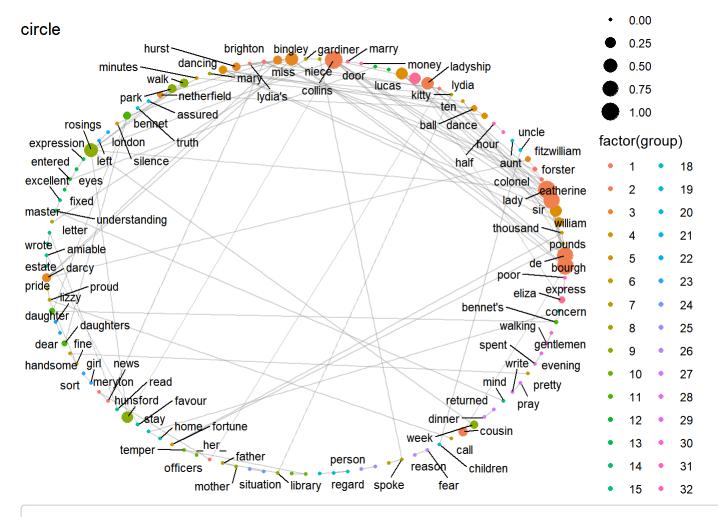
```
set.seed(2021)
igraph_layouts <- c('circle', 'graphopt', 'grid', 'mds', 'nicely', 'fr')

network.btw.data <- word_cors %>%
  filter(correlation > .15) %>%
  graph_from_data_frame() %>%
  as_tbl_graph(directed=F) %>% # 방향성이 있으면 TRUE, 하지만 여기서는 방향성 없이 보고싶음.
  mutate(eigen = centrality_eigen(), # 중심성 계산.
        group = group_infomap()) # 그룹화 시키는 과정.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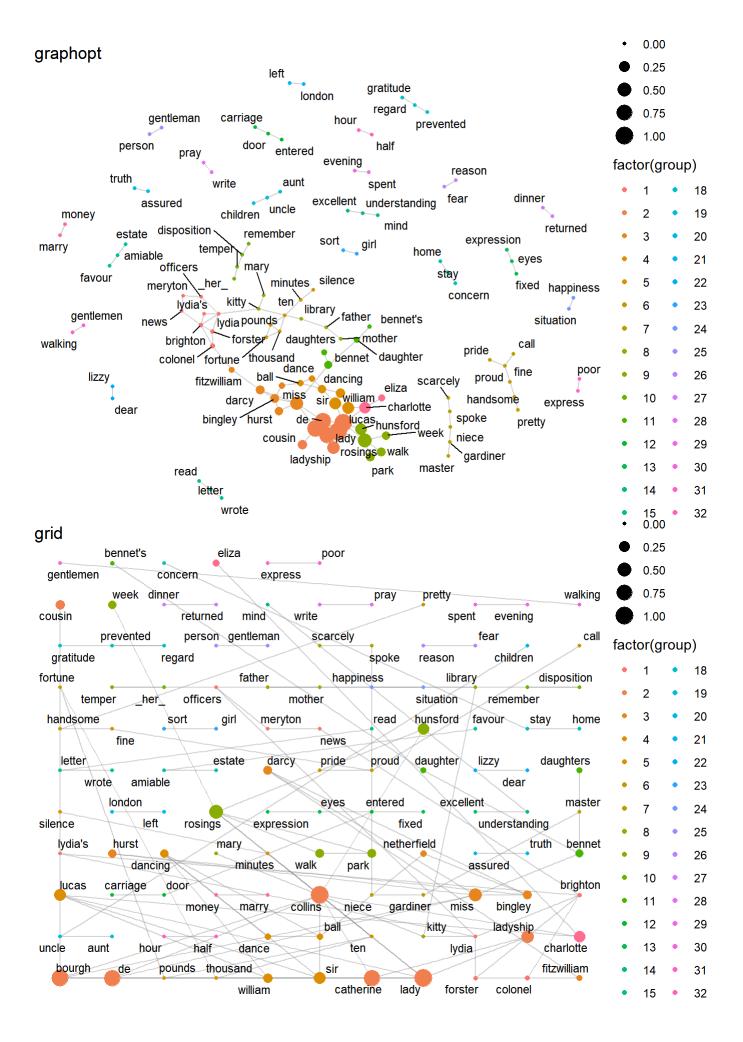
- layout="circle" : 원형의 network plot을 그림.
- layout="graphopt": 반복수행으로 최적의 그림을 표현.
- layout="grid": 직사각형의 network plot을 그림.
- layout="mds": 거리행렬에 대해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실시한 후, 그림으로 표현.
- layout="nicely": simple algorithm에 대해 적절한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.
- layout="fr": Fruchterman and Reingold force-directed layout algorithm.

```
for (i in seq_len(length(igraph_layouts))) {
  p<-network.btw.data %>%
    ggraph(layout=igraph_layouts[i])+
    geom_edge_link(color='gray50', alpha=.2) +
    geom_node_point(aes(color=factor(group), size=eigen)) +
    geom_node_text(aes(label=name), size=3, repel=TRUE) +
    theme_graph() +
    theme(legend.position='none')+
    ggtitle(igraph_layouts[i])+
    theme_void()
    plot(p)
}
```

```
## Warning: ggrepel: 9 unlabeled data points (too many overlaps). Consider ## increasing max.overlaps
```



Warning: ggrepel: 4 unlabeled data points (too many overlaps). Consider ## increasing max.overlaps



Warning: ggrepel: 30 unlabeled data points (too many overlaps). Consider

increasing max.overlaps

